

2020년 11월 2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사무관 정재균(2561) /제공: 11월 27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 우려가 있는 소하천·소류지를 신고하면 소독해드립니다

- 현재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벌써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*되는 등 가금 농장으로의 AI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
 - * 천안 봉강천(10.25 확진), 용인 청미천(10.28, 11.25), 천안 병천천(11.10), 이천 북하천(11.14, 11.19), 제주 하도리(11.22)
- 농식품부는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3개소를 중심으로 광역 방제기, 무인헬기 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.
- 다만, 소하천 및 소류지에도 철새가 관찰되는 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,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장 인근 소하천·소류지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 인근의 소하천이나 소류지에 철새가 도래하는 등 AI 전파 위험성이 있는 곳은 가금농가가 방역 당국에 신고토록 하였으며,
 - 접수된 대상지는 관할 시·군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
- 현재 농식품부는 농가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매일 전국 6천여 가금농가에 관련사항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으며
 - 신고하고자 하는 농가는 관할 지자체 방역부서(1588-4060) 또는 가입한 가금협회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.

-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"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는 소독 사각지대 제거를 통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"고 강조하며,
 - 이번 소독대상지 신고에 대한 가금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농장 인근 소하천·소류지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.